

# 칼빈과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창조의 역할

이신열 (고신대학교)

## I. 시작하는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세밀하고 자상하게 보살피시며 통치하신다는 섭리 (providence)는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에 해당된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John Calvin, 1509-1564)은 섭리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를 자신의 <기독교 강요> 1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sup> 칼빈의 섭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그가 이를 하나님의 창조, 즉 자연현상에 대한 묵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비록 칼빈은 중세적 우주론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연현상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관찰하고 이에 드러난 특징들에 주목한다. 그가 자연을 과학적 태도로 관찰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질적 삶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sup>2)</sup>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그의 사고가 가져다 준 실질적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Wolfhart Pannenberg, 1928- )는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내용을 지닌 창조론을 추구해 나간다. 그의 창조론은 삼위일체론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이에서 도출된 결론을 활용하여 창조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현대 과학적 차원에서 고찰해 나간다.<sup>3)</sup> 창조를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다루기에 앞서 판넨베르크는 섭리라는 주제를 주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먼저 다룬다.<sup>4)</sup> 그는 17세기 이후 자연과학의 발전과 섭리 교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다.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20세기 말에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칼빈과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를 창조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의 신학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이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섭리 교리 가운데 특히 자연의 보존과 이에 대한 통치에 관해서 논의를 집중하는 가운데 양자의 사고에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판넨베르크의 주장에 드러난 비개혁주의적이며 비성경적 견해를 칼빈의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 II. 칼빈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창조의 역할

1) 『기독교 강요』, 1.16-18.

2) W. Stanford Reid, "Natural Sciences in Sixteenth-Century Calvinistic Thought,"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Canada* 1, series 4 (1963), 305-19; Davis A. Young, *John Calvin and the Natural World*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7), 7, 9-10.

3)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2, trans.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1), 59-136. 이하 ST 2로 약칭함.

4) ST 2:35-59.

5) Wolfhart Pannenberg,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Modern Science," *Zygon* 23 (1988), 3-21; Stanely J. Grenz, "'Scientific' Theology/ Theological 'Science': Pannenberg and the Dialogue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Zygon* 34 (1999), 159-66; John Polkinghorne, "Wolfhart Pannenberg's Engagement with the Natural Sciences," *Zygon* 34 (1999), 151-58.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1559)에 나타난 일반 섭리에 대한 견해는 주로 하나님께서 신론 (deism)의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단번에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참 냉랭하고 메마른 사고일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세속적인 자들과 다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하는 능력이 처음 세상의 창조 이후에 계속되는 우주의 상태에서도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칼빈이 주장하는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존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난다. 만물은 그 본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는 우연에 의해 움직이고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시는 법칙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sup>7)</sup> 자연의 질서는 일반적인 충동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즉 그의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의지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 (omnipotence)이 드러난다.<sup>8)</sup> 여기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자연의 질서’는 창조시에 확정된 것이며 하나님은 이 질서를 자신의 섭리를 통해 오늘도 유지하고 계신다.<sup>9)</sup> 칼빈은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일한 전능하심의 작용에 의해 지속적인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의 시편 33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상은 이를 창조하는데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신적 능력에 의해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 ... 따라서 선지자는 현명하고 적절하게 자연의 계속적인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확실성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sup>10)</sup>

창조와 관련하여 일반 섭리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피조세계의 보존 (preservation)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떠나서는 상상될 수 없다. 칼빈은 지구가 물과 대기 위에 세워졌다는 당대의 우주론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이는 지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의 시편 119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살펴본다면, 지구는 무엇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이는 물과 대기에 의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놓지 않은 채 든든한 땅에 15피트 높이의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 즉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위에 지구 전체가 세워져서 언제든지 거꾸로 뒤집히고 질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따라

6) 『기독교 강요』, 1.16.1.

7) CO 7, 186ff (*Against the Libertines*).

8) 『기독교 강요』, 1.16.3.

9) 섭리의 관점에서 자연의 질서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다루는 글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5), 7-37.

10) CO 31, 327 (시 33:6 주석). CO 31, 195 (시 19:1 주석): "하나님을 우주의 아름다운 구조물을 세우신 탁월한 건축가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의 무한한 선하심,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 경이감과 더불어 황홀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서 지구를 그 상태로 유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11)</sup>

또한 칼빈은 바다의 드높은 물결과 거센 파도가 어떻게 순식간에 잔잔해 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비롯되는 섭리에 기인한 것으로 욥기 26:12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사람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서 산 높이만큼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바다가 두 세 시간 동안 또는 일 년 내내 잠잠해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정반대의 변화가 순식간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조용해질 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다의 물결이 급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 이렇게 파도가 급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욱 잘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sup>12)</sup>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 피조세계가 보존되어야 할 이유는 자연이 그 자체로서는 안정되지 못하고 파괴되기 쉬운 상태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거두신다면 우주는 완전한 무 (nothing)의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sup>13)</sup>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생성된 우주의 원래 상태는 혼돈과 불안정, 그리고 파괴되기 쉬운 상태 그 자체이었다.<sup>14)</sup>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혼돈과 불안정의 상태에 놓여 있던 우주에 질서 (order)와 아름다움 (beauty)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섭리와 연결시키면서 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무수한 각종 사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셨으며, 각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을 부여하시고 기능을 부여하시고 장소와 위치를 지정하셨으며, 또한 모든 만물들이 부패할 소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sup>15)</sup>

그렇다면 이렇게 칼빈은 어떻게 피조세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영감 (inspiration)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생성된 원래 피조세계는 안정성을 그 자체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숨겨진 영감 (arcana inspiratio)에 의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1:2 에 언

11) CO 32, 620 (시 119:89-96 설교).

12) CO 31, 440 (욥 26:12 설교). 슈라이너는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질서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 선하심,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를 계시하신다고 밝힌다. Susan E. Schreiner, *Where Wisdom Shall Be Found? Calvin's Exegesis of Job from Medieval and Modern Perspectiv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4), 137.

13) CO 32, 95 (시 104:29 주석); CO 37, 11 (사 40:7 주석); CO 47, 5 (요 1:4 주석)

14) CO 23, 23f (창 1:21 주석); CO 37, 598 (렘 4:26 주석).

15) 『기독교 강요』, 1.14.20; 1.13.22: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고, 부드러운 보살 피심으로 혼돈 중에 있는 천지의 물질이 아름다움과 질서를 덧입기까지 그것을 지탱시키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급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대해서 주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제 그는 성령의 능력이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제 통치 또는 질서에 의해서 보존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무질서한 덩어리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비록 이 덩어리가 아무리 엄청난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령의 숨겨진 영감에 의해서 이 덩어리가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sup>16)</sup>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피조세계에 부여된 아름다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이라는 <기독교 강요>의 한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돈하셔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 그 중에 어떤 별들은 그 위치에 고정시키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 놓으셨고, 또 다른 별들은 자유로이 움직이게 하셨으나 그 지정된 경로를 떠나 이리저리 방향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낮과 밤, 달과 해와 계절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지정하셔서 일정하게 하셨고, 항상 보는 바와 같이 낮의 길이가 균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놓으신 -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광대한 덩어리를 유지하시며 천체들의 신속한 운동을 지도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sup>17)</sup>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주를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만드는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전능을 행사하여 우주를 향한 지속적인 섭리가 주어지도록 만드는가? 수잔 슈라이너 (Susan Schreiner)는 칼빈의 섭리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전능성 이면에는 불변성 (immutability)의 속성이 놓여 있으며 양자가 섭리에 있어서 함께 작용한다고 해석한다.<sup>18)</sup> 하나님의 전지성 (omniscience), 선하심 (goodness), 지혜 (wisdom) 등의 속성들은 그의 창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섭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섭리가 지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불변성이 드러난다. 이 불변성이 피조물들에게 섭리를 통해 부여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변성은 통치 (government)에 있어서 그의 신실하심 (faithfulness)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므로 자신의 통치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신다.<sup>19)</sup> 이러한 통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죄악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심을 뜻한다. 섭리의 한 요소로서 통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서 발견되는데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16) CO 23, 16 (창 1:2 주석); CO 24, 78 (출 6:3 주석).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57), 16.

17) 『기독교 강요』, 1.14.21.

18)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33-35.

19) CO 31, 83 (시 7:9 주석);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33.

같이 표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모든 만물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면, 그 다스림을 자연의 흐름 내에만 한정시킨다는 것은 유치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좁은 한계 내에 국한시키고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영구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유로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유익한 섭리의 교리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처사인 것이다.<sup>20)</sup>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버지이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영광이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칼빈에게 섭리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친히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sup>21)</sup> 섭리에 나타난 자신의 불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칼빈은 이를 ‘우리 믿음의 영광’이라고 밝힌다.<sup>22)</sup>

결론적으로 칼빈의 섭리 이해는 그의 창조 이해와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전능성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한 보존과 통치의 직무를 행사하신다. 보존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칼빈은 특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영광이 인식된다.

### III.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창조의 역할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는 이에 대한 전통적 구분, 즉 보존 (preservation), 협력 (cooperation), 그리고 통치 (overruling)에 기초해 있다. 판넨베르크는 ‘보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창조와의 관계를 중요한 논점으로 다룬다. 먼저 그는 보존이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그 결과로서 창조의 행위를 전제로 내세운다.<sup>23)</sup> 이는 창조시에 확립된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유지하심을 뜻한다. 여기에서 ‘유지하다’는 단어가 내포하는 개념은 피조세계가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발성 (contingency)을 전제로 삼는 개념이다. 창조의 결과로 주어진 피조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 작용과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sup>24)</sup> 창조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이며 내적 행위와 구별되는 외적 행위이지만 이 사실 자체가 창조의 행위를 시간에 의해서 제한되는 행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판넨베르크는 어거스틴 (Augustine)의 창조 이해에 동의하면서 세상이 시간과 더불어 (with time) 창조되었지 창조가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위

20) 『기독교 강요』, 1.16.3.

21) CO 32, 190 (시 115:16 주석);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 신학』, 장호광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90.

22) CO 31, 123 (시 11:4 주석); 셀더르하우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133.

23) ST 2:35, 57.

24) ST 2:1.

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어거스틴의 이 주장이 결국 두 가지 잘못된 개념, 즉 영원이 시간에 반대되는 무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간의 시작을 알리고 그 시작에 의해 제한된다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sup>25)</sup> 왜냐하면 창조가 “시작이라는 시간에 제한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6)</sup> 판넨베르크에게 창조란 시간의 시작점에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또한 시간의 전개 과정의 특정한 시점에서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계의 창조는 시간과 역사 안에서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창조가 이러한 행위들의 시작만을 가리킨다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이는 다른 모든 피조적 현실들과 더불어 시간 자체를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단순히 피조적 존재의 일시적 시작만을 확립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모든 범위 내에서의 이 존재 자체를 확립한다.<sup>27)</sup>

이는 구체적으로 개별적 피조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며 이와 동시에 또한 지속되는 시간의 어떤 시점에서도 창조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모든 우주적 과정을 포괄하고 역사에 나타나는 신적 행위의 모든 단계로 침투해 들어간다.”<sup>28)</sup> 여기에서 판넨베르크가 추구하는 보존과 창조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존과 비교해 볼 때 창조는 특히 피조물의 시작과 관련된 행위인 반면에 보존은 창조를 통해 생성된 피조물의 지속을 의미한다. 보존은 단독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 행위로서 피조물에 관계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보존의 행위가 곧 창조의 종결을 의미하는가? 창조와 보존의 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가 또한 보존하실 것이다.”로 표현되는 일방적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창조는 보존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조물의 시작과 관계되지만, 창조가 하나님의 영원한 외적 행위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존에 의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판넨베르크는 보존의 행위 가운데 창조가 터져 나오며 그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새롭고 우발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기적이라고 밝힌다.<sup>29)</sup> 따라서 창조와 보존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 (the former)가 후자 (the latter)로 흘러간다는 일방적 관계로만 국한되지 아니하며 일종의 쌍방적 (bilateral) 관계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쌍방성은 보존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보존의 개념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뜻하며 여기에서 양자 사이의 통일성(unity)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가 판넨베르크에게 가능하다:

우리는 보존을 단순히 처음에 주어졌던 피조적 존재의 형태에 대한 불변적인 유지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살아 있는 발생 (occurrence)이며 계속되는 창조로서 원래 주어진 존재를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적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창조, 보존, 그리고 통치는 전체를 구성하는데 그 구조적 관계는 더욱 자세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25) ST 2:39f.

26) ST 2:38.

27) ST 2:42.

28) ST 2:41.

29) ST 2:43-44.

30) ST 2:34.

판넨베르크가 어거스틴으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는 요소는 창조를 지속성을 지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제한하지 않고 우발적 행위에 근거하여 시간 속에서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두므로 사실상 창조에는 시간의 구별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런 의미에서 판넨베르크가 이해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창조가 하나님의 초월적 행위임과 동시에 또한 인간의 시간 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임을 뜻한다.<sup>31)</sup> 창조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주장의 근거는 판넨베르크의 삼위일체론적 창조론에서 발견된다. 창조를 통해 주어진 피조물의 특징이 우발성에 의해 정의된다면 이 존재는 그 자체로서 지속적이지 않다. 이 피조물이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피조물의 독립성(independence)에 해당된다.<sup>32)</sup> 그렇다면 이 독립성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판넨베르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성자가 성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확정하는 자기 구별(self-distinction)에서 찾는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영원한 행위는 삼위일체론의 핵심에 해당되는데 이 자기 구별의 행위를 통해 성자와 성부와의 위격적 관계가 확립될 뿐 아니라 (i.e. 성자가 성부를 자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성자는 신적 삶의 통일성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자기 구별을 통해서 성자가 삼위일체를 영원히 구성하는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거나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구별이 그의 아들됨이 삼위일체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 즉 피조물의 형태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판넨베르크는 성자의 자기 구별과 성육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와 천부 (heavenly Father)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는 신격의 통일성을 벗어나게 되었다. 자신이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그리고 성부로부터의 자기 구별을 통해서 예수는 성부를 자신과 대조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의 독립적 실존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피조물 됨에 대한 수용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겸손의 일부분이었다.<sup>33)</sup>

이 영원한 행위는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자의 성육신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는 자신을 성부의 영원한 성자로 입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이제 영원한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인간적 실존에 대한 실체적 기초가 되신 것이다. 인간 예수와 영원한 성부, 그리고 영원한 성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성은 성육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물질성(materiality)에서 발견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mediatorship)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는 자신의 피조적 실존을 통해 피조세계의 모든 우주적 구조와 실체를 현실화하시는 직분을 가리킨다. 판넨베르크는 어떻게 성자가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실이 지닌 실제적 의미를 요한복음 1:10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피조물들이 영원한 성자나 말씀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면, 이 피조물들이 이

31) ST 2:7.

32) ST 2:20.

33) ST 2:29.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성의 법칙을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만큼,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로부터 소원화될 것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요한복음 서두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0b)라고 밝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성육신 사건에 전제된 것이며 11절에 언급된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 '소유' (possession)에 왔다는 표현의 기초에 해당된다.<sup>34)</sup>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일 뿐 아니라 (히 1:2; 골 1:16) 그를 통해서 만물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진다 (엡 1:10).<sup>35)</sup>

여기에서 판넨베르크는 성자가 성부로부터 차별화되는 사실이 만물의 기원이며 또한 이 사실을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sup>36)</sup>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존재하는 피조물의 의미는 피조물 자체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피조물의 존재하는 것이며 피조물의 독립적 실존에 해당된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피조물의 독립성은 그 자체로서 창조의 근원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므로 피조물은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피조물이 이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동성을 통해서 영원에 참여하는 가운데 엔트로피 작용을 통해 진행되는 파괴와 붕괴를 극복하고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sup>38)</sup>

판넨베르크는 피조물의 독립성을 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제 독립성은 피조물이 지닌 실존적 형태의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로 정의되는데 이는 자발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로서의 보존 사역을 무시한 채 자기 조직화는 직접적 신적 창조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일종의 자연 과학적 우회적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자기 조직화란 생명의 진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진화론적 이해를 추구한다.<sup>39)</sup> 판넨베르크가 주장하는 진화론의 핵심은 창발적 진화 (emergent evolution)에 놓여 있는데 이는 창조가 보존으로부터 새로운 사물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그의 진화 개념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창조적인 행위를 단지 이미 확정된 질서의 보존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물의 지속적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신학에 제공한다.<sup>40)</sup>

이 주장은 진화를 내세움에 있어서 사실상 보존이라는 신적 행위의 실제적 효능과 필요성에

---

34) ST 2:25.

35) ST 2:24-25.

36) ST 2:22-23.

37) ST 2:133. 여기에서 판넨베르크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조물의 독립이란 하나님 없는 독립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38) ST 2:96, 112.

39) ST 2:134-35. 진화란 자기 조직화를 가능하게 원동력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피조물의 독립을 파괴하는 엔트로피의 작용과는 반대로 조직체를 더욱 고도로 그리고 복잡한 형태로 이끄는 운동을 가리킨다. 2:113, 118-23. 그의 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해를 보여주는 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Human Life: Creation Versus Evolution?” in Wolfhart Pannenberg, *Natur und Mensch - und die Zukunft der Schöpfun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112-22.

40) ST 2:119. Cf. 2:131.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또한 여기에는 피조물의 실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존이 독립성을 위한 일반적 조건이라는 판넨베르크 자신의 주장과 상충되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sup>41)</sup> 창조와 보존이 앞서 언급된 쌍방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고찰된다면, 창조를 창발적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의 사고에는 더 이상 보존이 자리할 위치가 보이지 않는다.

#### IV. 칼빈의 이중적 섭리 이해: 숨겨짐 (hiddenness)과 나타남 (revealedness)

칼빈의 창조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사실이다.<sup>42)</sup>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에서 비롯된 자연의 질서를 통해 가시화된다. 칼빈은 비록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sup>43)</sup> 비록 그의 본질은 유한한 인간에게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그가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분명히 드러낸다.<sup>44)</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자연을 통해 자신의 지혜, 능력, 그리고 선하심을 드러내시는가는 궁극적으로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숨겨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짧은 지식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섭리가 지닌 드러남과 감추어짐의 이중적 성격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고 칼빈은 밝힌다.<sup>45)</sup> 첫째, 섭리의 사역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인간이 제대로 그리고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일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섭리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탐구할 이유를 제공한다. 셋째, 인간의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기 보다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인간의 눈에 드러남과 동시에 감추어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인 인간이 지닌 지식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배워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사임을 밝히는데 그의 가르침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어질 수 없음을 욥기 36:22에 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41) ST 2:58. Cf. 버헨은 전통적 신학에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는 서로 상충적이지 않았는데 판넨베르크에게 인간의 자유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므로 일반 섭리의 개념은 인정되지만 특별 섭리는 부인된다고 주장한다. 특별섭리를 부인하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었던 예수의 부활이라고 밝힌다. Herbert Burhenn, "Pannenberg's Doctrine of God,"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8 (1975), 541-42.

42) 『기독교 강요』, 1.5.1; 1.6.2; CO 23, 18 (창 1:6 주석); CO 35, 315 (욥 37:1 설교). 이신열, 『칼빈신학의 풍경』 (서울: 대서, 2011), 44-45.

43) CO 35, 303 (욥 36:25 설교).

44) CO 40, 577 (단 2:21 주석).

45) CO 35, 339 (욥 37:14 설교).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이 교훈을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이는 우리를 자신에 대한 무모한 신뢰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끈다. 둘째,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둘러싼 위험들을 경멸하도록 이끈다. John Calvin,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in *Calvin's Calvinism*, trans. Henry Cole (Grand Rapids: Eerdmans, 1950), 229.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교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참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까지는 우리는 결코 완전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그의 성령으로 감동시키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는 우리가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의 특별한 직무에 해당되며 경험은 우리에게 그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sup>46)</sup>

또한 칼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에 숨겨져 있으므로 그가 행하시는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욥기 18:4에 나타난 빌닷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면서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의 질서를 정하셨다고 빌닷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서를 따라 발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나되 사람이 이를 알 수 있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 진리를 온당하지 못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가 여기에서 우리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 그러나 그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 때에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단지 부분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옳은 것도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는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up>47)</sup>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감추어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sup>48)</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세상의 일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하므로 인간에게는 우발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함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sup>49)</sup>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감추어진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통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의 영을 통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이를 자신의 종들에게 허락해주시되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르침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sup>50)</sup> 칼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 2:28을 주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을 갑자기 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

46) CO 35, 295 (욥 36:22 설교).

47) CO 34, 68 (욥 18:4 설교). Schreiner, *Where Shall Wisdom Be Found?* 137-38에서 재인용.

48) 『기독교 강요』, 1.17.1.

49) 『기독교 강요』, 1.16.9.

50) CO 40, 588 (단 2:30 주석); 『기독교 강요』, 1.17.2.

가 꿈을 꾸었다거나 작위적으로 또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교만한 왕이 경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sup>51)</sup>

슈라이너는 자연과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나타남과 감추어짐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 바 있다.<sup>52)</sup> 이는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이원론적 구도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드러나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감추어진 차원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눈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택하신 종들을 통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

#### V.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섭리 이해: 영원과 역사의 관점에서

창조와 관련된 판넨베르크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그가 창조를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 파악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는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하나로 통일하는 미래의 능력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에는 현재를 포함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일들이 포함된다.<sup>53)</sup> 판넨베르크의 창조론의 핵심에는 지속적 창조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창조가 단순히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과거와 미래의 인과 관계적 이해와는 달리, 신적 인과 관계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단순히 반복되어 미래를 구성하게 된다는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sup>54)</sup> 왜냐하면 피조물이 과거에 고착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에는 진정한 우발성 (contingency) 뿐 아니라 피조물이 누려야 할 자유 또한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5)</sup> 아울러 이는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미래가 지녀야 할 자유와 이에 따르는 새로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개념에 해당된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는 영원하며 시간적인 차원보다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시작과 끝의 구분이 가능한 행위인데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언급한다 (사 44:6; 48:12; 계 1:8; 21:16; 22:13).<sup>56)</sup> 판넨베르크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사고를 거부하고 과거에 대해서 미래가 우선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미래와 모순되는 창조에 관련되는 어떤 행위도 부인한다. 그 결과 창조와 보존 사이의 구분을 제거함으로써 신적 행위가 자유와 우발성이 결여된 닫힌 우주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7)</sup> 여기에서 판넨베르크가 의도하는 것은 섭리의 한 요소인 보존이 창조에 포함되어 더 이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도록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보존의 일반적인 의미는 시간적 인과관계에 의해 과거의 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행위를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의 우선권과 상충되는 개념에 해당된다. 보존이 창조의 시작에, 신적 통치는 미래의 완성에 관계된다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은<sup>58)</sup> 보존이 창조

51) CO 40, 586 (단 2:28 주석).

52) Schreiner, *Where Shall Wisdom Be Found?* 135-38.

53) Wolfhart Pannenberg, *Theologie und Reich Gottes* (Gütersloh: Gerd Mohn, 1971), 20.

54) Pannenberg, *Theologie und Reich Gottes*, 22.

55) ST 2:141.

56) ST 2:140.

57) ST 2:142.

58) ST 2:139, 57f.

에 의해 흡수되었음을 뜻할 뿐 아니라 이제 그의 섭리 이해에 있어서 통치의 개념만이 남게 되었음을 아울러 뜻한다. 창조라는 신적 행위가 영원한 행위이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이런 차원에서 판넨베르크에게 창조와 종말은 하나로 묶여진다.<sup>59)</sup>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는 세상을 전체로 이해할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세상의 시작에 대한 견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60)</sup>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래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판넨베르크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작용된 결과로 주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피조물 모두에 미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에 판넨베르크의 만유재신론적 (panentheistic) 사고의 흔적이 드러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필연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역사의 진행에 의존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뜻한다.<sup>61)</sup>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 자체가 세상의 미래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62)</sup>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창조와 섭리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행위는 창조에 나타난 신적 행위의 즉각성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위가 지녀야 할 통일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와 종말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그의 주장은 단순하게 미래가 과거에 발생하였던 창조를 지배한다는 것 이외의 설명을 요구하는 주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제 판넨베르크는 창조의 지속적 차원을 섭리와 연관시켜왔던 신학의 일반적 이해 대신에 섭리의 요소인 보존을 제외한 상태에서 역사 속에서 창조가 어떻게 종말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과제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은 유대교의 묵시론적 (apocalyptic) 가르침에 나타난 세계 제국의 연속성의 개념 (단 2:36-45)이다.<sup>63)</sup> 이를 통해서 보편사 (universal history)의 통일성과 창조기사에 담긴 보편성 사이에 일종의 유사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묵시론적 개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종말론적 차원과 되는데 이로 인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가능해 지는데 이를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오심에 해당된다.<sup>64)</sup> 예수를 통해서 창조는 종말론적

59) Pannenberg, *Theologie und Reich Gottes*, 18; *ST* 2:139: "Creation and eschatology belong together because it is only in the eschatological consummation that the destiny of the creature, especially the human creature, will come to fulfillment."

60) *ST* 2:146.

61) Sam Powell, "History and Eschatology in the Thought of Wolfhart Pannenberg," in *Fides et Historia* 32 (2000), 25-26; David P. Polk, "The All-Determining God and the Peril of Determinism," in Carl E. Braaten & Philip Clayton (eds.), *The Theology of Wolfhart Pannenberg: Twelve American Critiques, with an Autobiographical Essay and Respons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165-67.

62) Wolfhart Pannenberg, *The Apostle's Creed in the Light of Today's Questions*, trans. Margaret Koh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174.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에 의존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시간과 영원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Constructive and Critical Functions of Christian Eschatology,"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7 (1984), 138: "But not the end of time borders on eternity: God himself is the end of time, and as the end of time he is the final future of his creation."

63) *ST* 2:142-43.

64) *ST* 2:145.

미래의 빛 아래 새롭게 조망되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가 통일된 전체로서 미래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그의 궁극적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뜻한다.<sup>65)</sup>

## VI. 칼빈과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에 나타난 특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칼빈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와 연속선상에 놓인 개념이다. 창조에 대한 그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섭리로 흘러 들어간다. 이는 섭리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선하심, 지혜를 깨닫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섭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에게 섭리는 창조에 종속된 개념에 불과한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칼빈이 얼마나 섭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실존과 개입을 의미한다. 칼빈은 이러한 섭리의 현재적 차원을 ‘임의적 현재성’ (praesens arbitrium)이라고 불렀다.<sup>66)</sup> 칼빈이 섭리가 과거와 미래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지만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역경 중에 활동하시고 개입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섭리는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로, 인내, 평안, 확신 등의 구체적인 유익을 제공하고 신앙과 윤리적 삶을 위한 훌륭한 안내를 제공한다. 셀더르하위스 (H. J. Selderhuis)는 칼빈이 이런 이유에서 섭리만을 진정한 신학이자 하나님에 관한 유일하게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sup>67)</sup>

둘째,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인간에게는 우발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이는 섭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함께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심과 동시에 이를 초월하신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시되 만물의 독자적 실존을 허락하셨으며 이로 인해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우주적 행위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그것만의 독특한 자질과 성질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이에 걸맞는 성향을 따르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다.”<sup>68)</sup>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를 강조하기 위해 피조물의 자율성과 자유를 희생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가 섭리에 나타난 신적인 차원의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적 차원에 대한 고찰을 잊지 아니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sup>69)</sup> 칼빈은 섭리를 성령론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국한시키는 우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의 섭리 이해에는 성부에서 출발하여 성령을 통해 개인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섭리의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이 간과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은 섭리 이해에 있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차원 없이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음에 주목하였다.

65) ST 2:55; Pannenberg, *Theologie und Reich Gottes*, 21.

66) CO 32, 435 (시 148:7 주석). 셀더르하위스, 『칼빈의 시편신학』, 133.

67) 셀더르하위스, 『칼빈의 시편신학』, 132.

68) CO 7, 187 (Against the Libertines).

69) CO 48, 39 (행 2:23 주석). P. H. Reardon, "Calvin on Providence: the Development of an Insigh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8 (1975), 531.

그렇다면 칼빈과 비교해 볼 때 판넨베르크의 섭리이해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판넨베르크의 섭리 이해에 있어서 출발점은 칼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이었다. 창조없는 섭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먼저 이는 창조가 섭리의 요소인 보존을 위한 피조물의 존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판넨베르크는 사실상 보존 자체를 위한 고찰 보다는 오히려 보존의 기초, 또는 배경에 해당하는 창조에 대한 고찰에 집중한다. 보존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행위의 시간적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었으며 그 결과 사실상 보존은 창조 속으로 흡수되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진화에 의해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판넨베르크는 칼빈과 달리 섭리를 보존을 제외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을 통해서만 고찰하기에 이르는데 이에 관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는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 의해 피조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정의됨을 뜻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역사상에 실존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다.<sup>70)</sup> 그렇다면 그에게 현재 (present)란 무엇인가? 현재는 그 자체로서 우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미래의 우선성에 의해 지배되는 개념에 해당된다. 즉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상 현재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확대 해석된다. 데이빗 폴크 (David Polk)는 이를 '경직된 결정론 (hard determinism)'이라고 명명하는데 여기에서 피조물의 자유는, 판넨베르크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1)</sup>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유지했던 신적 주권과 인간적 우발성 사이의 균형은 판넨베르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칼빈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가 미래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이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원리이었다.<sup>72)</sup> 이 원리는 미래를 결정짓는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개입하시고 행하시는 '현재'의 섭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넨베르크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미래성은 그의 현존을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예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로서 임재하심을 가리킨다.<sup>73)</sup>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현재'의 섭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진화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견해는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에 해당되는 창조는 미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시간 또는 역사와 상관없이 창조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되는 창조의 새로움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이해는 창발적 진화의 개념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섭리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신적 보존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논의될 정당성 또는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판넨베르크가 창발적 진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새로운 것의 창조를 언급하는 성경의 메시지와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비평의 원리를 수용한 판넨베르크에게 성경에 나타난 섭리를 논함에 있어서 이를 다른 이방인들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sup>75)</sup> 이런 차원에서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과학적 방식이라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70) Wolfhart Pannenberg, "The Question of God," in *Basic Questions in Theology*, vol. 2, trans. by George H. Keh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201. Polk, "All-Determining Power and the Peril of Determinism," 159-60.

71) David McKenzie, "Pannenberg on God and Freedom," *Journal of Religion* 60 (1980), 315.

72) 『기독교 강요』 1.17.1.

73) Pannenberg, *Theologie und Reich Gottes*, 26.

74) ST 2:119.

75)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자연신학』, 박일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193.

